

#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김범구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급변하는 세계 금융 환경과 국내 금융 시장의 전면적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낙후된 원인은 과거 금융 산업을 경제 발전의 지원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보호와 규제라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개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내 시장 기능의 활성화, 금융 기관의 대형화 촉진, 금융 기관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금융 인프라의 구축, 금융 자율화에 상응하는 감독 강화 등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금융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금융의 자율화·겸업화·증권화·정보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통합화 진전과 함께 국제 금융 시장도 급속히 통합되어, 금융 산업에서도 무국경·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금융 자율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 산업의 구조 개편과 금융 시장의 전면적 개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국내외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한편, 금융 시장 개방 이후 낙후된 국내 금융 산업에 대한 심각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은 지난 30여 년간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왔다. 이 때문에 금융 산업 자체의 성장 및 효율성보다는 산업 정책적 차원의 고려에 따른 정부의 규제가 금융 시장의 왜곡과 금융 산업의 낙후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낙후된 금융 산업은 그동안 실물 부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해왔으나, 최근 급변하는 금융 환경 하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 금융 시장의 통합과 이에 따른 선진 금융 기관과의 무한 경쟁

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 산업 자체가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경쟁력 현황을 살펴보고, 경쟁력 저하의 원인을 분석한 후, 새로운 금융 환경 하에서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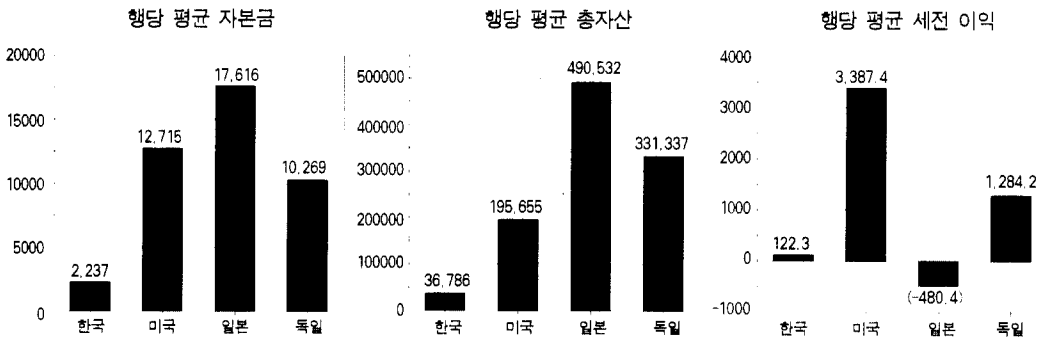
###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경쟁력 현황

#### 1) 절대 규모

우선, 자산 및 자본금 규모 측면에서 국내 금융 기관은 외국의 선진 금융 기관에 비해 절대적인 열

〈그림 1〉 은행 규모의 국제 비교(1995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The Top 1000 World Banks," *The Banker*, 1996. 7.

주: 한국은 5대 시중 은행 평균, 미국·일본·독일은 상위 5대 은행(자본금 기준) 평균

〈표 1〉 증권회사 규모의 국제 비교

(단위: 십억 원, 십억 달러, 개)

	한국				국제 비교(1993)		
	1993. 3	1994. 3	1995. 3	1996. 3	한국	미국	일본
총자산	22,377	22,485	25,048	25,132	27.6	1,240	215.5
자본금	3,470	3,565	3,727	3,684	11.2	53.4	57.2
증권회사 수	-				32	7,441	268

자료: 증권감독원, 「자본 시장 연보」, 1995.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의 법제개혁과 증권 산업의 구조 개편」, 1996.

세에 놓여 있어, 금융 시장 개방 이후 자산 운용, 자본 조달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 각국의 상위 5대 은행들의 평균 자산 규모를 비교하면, 국내 은행에 비하여 일본 은행은 12 배, 미국 은행은 5 배나 된다. 또한 국내 시중 은행 전체를 다 합쳐도 자산 기준으로 세계 25위, 자기 자본 기준으로 세계 8위에 불과하다. 증권회사의 경우도 평균 규모 면에서는 외국에 비해 큰 편에 속하지만, 상위 5 개사만을 비교하면 그 규모가 작은 편이다.

2) 주요 경영 성과 분석

국내 은행의 생산성 지표는 1990년에서 1995년 기간 동안 경제 규모의 확대 및 경영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에 힘입어 꾸준히 높아져왔으나, 수익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자기자본이익률(ROE)의 경우, 1995년 말 현재 4.19%로 선진국 은행의 7.0%에 비해 크게 낮은 형편이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비효율성, 누적된 부실 채권 그리고 막대한 주식 투자 손실을 들 수 있다.

국내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업무 영역 및 신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때문에 생산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외국 증권회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 증권회사의 1

〈표 2〉 국내 은행의 주요 경영 지표(1995년)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1인당 총자산	1인당 총수익	1인당 순이익	ROA	ROE	자기자본비율
시중 은행	2,016	3,295	7.5	0.28	3.91	9.0
지방 은행	1,571	2,099	9.5	0.56	5.63	11.4
일반 은행	1,929	3,062	7.9	0.32	4.19	9.3

자료: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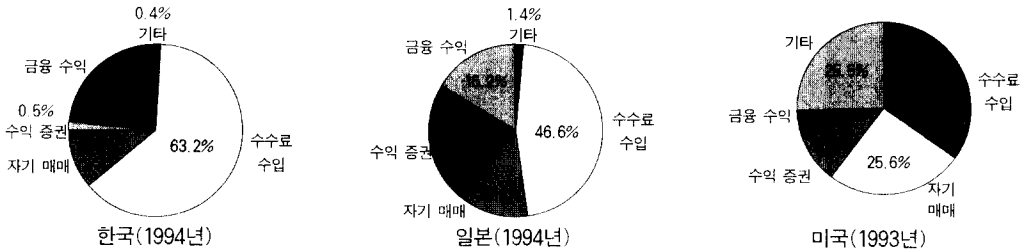
〈표 3〉 증권회사의 주요 경영 지표(1995년)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총자산 증가율	총자본 증가율	1인당 순이익	1인당 주식 거래액	ROE	자기자본비율
한국	16.5	5.8	18	7,980	6.7	52.8
미국	26.7	22.3	-	14,410	26.6	47.2
일본	0.0	-8.6	-	1,960	-7.6	44.3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의 법세계화와 증권 산업의 구조 개편」, 1996.

인당 주식 거래 규모는 일본의 55%, 미국의 67% 수준에 불과하는 등 증권 산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으며,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수익성 지표도 미국 증권회사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이다. 한편, 국내 증권회사의 수익 구조가 위탁 매매, 인수, 자기 매매 업무 등에 치중(약 70%)하고 있어 증시의 시황 변동에 따라 수익 구조가 불안정한 데 비해, 미국 증권 회사의 경우 파생금융상품, M&A, 위험 관리, 자산 관리, 자문 서비스 등으로 수입원의 다변화가 이루어져 수익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림 2〉 증권회사 수익 구조의 국제 비교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의 범세계화와 증권 산업의 구조 개편』, 1996.

### 경쟁력 저하의 원인

국내 금융 기관의 경쟁력이 뒤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에 정부가 관치금융체제를 유지하며 금융 기관의 경영에 개입하고, 진입 규제 및 업무 영역 규제를 통해 여러 형태의 군소 금융 기관을 난립시키며, 정책 금융의 형태로 대규모의 부실 채권을 금융 기관에 떠 넘겼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규제를 통해 규제 대상 금융 기관은 사실상 정부의 보호 아래 독점적 지위를 굳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금융 기관의 안이하고 방만한 경영 방식이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려왔다. 그 결과, 국내 금융 산업은 그동안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율화 경험 부족과 금융 기법의 미발달, 금융 하부 구조의 취약, 금융 규제의 과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경험 부족과 낮은 신뢰도 등으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자율화 및 금융 산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 기관의 인사 자율화, 여신관리제도 개선, 금융 기관의 업무 영역 조정 및 대형화·전문화 촉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금융 산업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러한 방안만으로는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를 하나씩 점검하고자 한다.

### 1) 시장 기능의 활성화

무엇보다도 금융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호와 규제라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업계 스스로 생존 전략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 하의 시장 자율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켜야 한다. 또한 금융 자율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융 산업 내에 자율과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진입 장벽, 업무 통제 등 정부의 규제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모든 금융 기관들이 적자 생존의 원칙 하에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금융 기관의 대형화 촉진

현재 국내 금융 기관은 평균적으로 적정 규모에 미달된 수준에서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 시장 개방 이후 외국의 대형 금융 기관에 대응하여 복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겸업 업무의 확대, 인수·합병을 통한 금융 기관의 대형화가 필수적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은행·증권·보험의 3대 축을 기본으로 한 겸업 차원을 넘어서 3대 축간의 겸업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금융 산업의 개편도 업무 영역을 대폭 완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겸업을 허용함으로써, 복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쟁의 확대를 통해 군소 금융 기관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증자나 업무 제휴를 통한 대형화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 기관간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 개정과 세제 상의 개선책이 시급하다.

### 3) 금융 기관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현재 낙후된 국내 금융 기관 특히 은행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즉,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은행의 소유 및 경영 구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산업 자본의 금융 자본 지배 방지’라는 기본 원칙 하에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은행장추천제도는 은행장 권한의 지나친 강화와 견제 기능의 미흡으로 결국 ‘주인없는 은행’의 무책임한 부실 경영과 이에 따른 경쟁력의 저하로 귀결되었다. 또한 금융전업 기업가제도로도 까다로운 승인 요건으로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금번에 재경원이 발표한 은행의 책임 경영 강화 방안도 기본적으로 소유 구조는 바꾸지 않되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은행의 경영 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은행의 책임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당장 1998년에 금융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면 대자본과 첨단 기법으로 무장한 선진 금융 기관들이 물밀듯이 밀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인수·합병 등을 통해 외국 금융 기관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금융 기관의 대형화를 이룰 수 있는 자본은 대기업 자본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자본의 금융 자본 지배 방지’ 원칙을 맹목적으로 고수하다가 국내 금융 시장을 송두리째 외국 금융 기관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영국의 경우, 금융 시장 개방 이후 국내의 주요 증권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외국 금융 기관의 소유로 넘어간 것은 이러한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4%로 되어 있는 은행의 동일인 주식 소유 제한 등 현행 금융 기관의 소유 구조에 대한 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주주의 전횡에 따른 은행 경영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 4) 금융 인프라의 구축

금융의 정보화 추세 진전에 따라 21세기에 이르면, 금융 기관들은 자금 중개자의 기능보다는 금융 정보의 생산 및 제공 기능을 중시하는 전자 금융 기관의 형태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금융 기관을 포괄하는 신용정보종합전산망 등 금융 인프라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신용정보종합전산망의 구축은 선진 금융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

어 있는 국내 금융 기관의 대출 심사 기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신용 분석 기법을 발전시키고 신용정보공유체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아울러 전자금융시대에 선진 금융 기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내외 지점망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도 될 수 있다. 이러한 금융 인프라의 구축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정부와 금융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 5) 금융 자율화에 상응하는 감독 강화

금융 산업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감독 방식도 이전의 사전적 감독을 지양하고 예방적·사후적 감독, 유인 및 억제 중심의 간접 방식이 바람직하다. 한편, 금융 자율화와 금융 산업 개편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 추구하고 금융 산업의 목표 달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규칙의 확립이 필요하다. 내부자 거래, 이해 상충 행위 등 사적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여 금융 산업의 발전에 저해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금융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